

COME & SEE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찬양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다 찬양하여라(찬21/새21장)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이승호 집사 2부/주진철 장로 3부/강덕규 집사 4부/정용익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그 옛날 주가 거닌 길(Geoffrey O'Hara 작곡)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호세아(Hos.) 14:1-9..... Al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Mark) 10:13-16

말씀 Message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LAFC(13)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4부 Rev. Choong Kyung Lee **이충경 목사**
어린아이처럼 되게 성숙입니다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주께 가오니, 내 입술로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Come and See 50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고기를 아끼면 우리는 망한다

Skimping on Meat will Lead us to Doom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아내는 비행기만 타고 내리면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얼큰한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 해서 숙소 근처 김치찌개집에 들렀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주방 입구에 현수막처럼 걸려 있는 족자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고기를 아끼면 우리는 망한다.' 글귀가 재미있어서 사진도 찍고 카톡에도 올렸습니다. 잠시 후 김치찌개가 나왔는데, 고기뺌을 시켰다고 착각할 정도로 좋은 돼지고기가 보글보글 끓는 찌개에 푸짐하게 담겨 나왔습니다. 돼지고기를 즐겨 먹지 않는 저도 고기가 기름지지 않은데도 부드럽고 맛있었고, 김치찌개가 정말 시원하고 속을 훑는 것 같이 내려갔습니다. 식당 벽에는 김치찌개 [8계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찌개 맛이 달라지면 손님 맘도 달라진다!' '인사를 잘하면 가게가 살아난다!' '내가 뭘 하든 손님은 다 안다.' '일할 때는 신명나게, 오늘도 지화자'... 구구절절 가슴에 박히는 말들이었습니다. 다 맞는 말이고, 수공이 가고 고개를 절로 고덕이 게 하는 글귀 앞에서 무릎을 쳅니다.

이 원리는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만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예배이며, 섬김이며,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일에 인색한 교회는 그 결과가 보나마나입니다. 김치찌개의 핵심을 빼면 맛이 없고, 맛이 없으면 그 식당은 망하듯이, 교회의 핵심이 빠지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자로 이 글귀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목사가 말씀(공부)을 아끼면 목회는 망한다.' 말이 100% 수공됩니다. 강단에 서기 전까지 얼마큼 아낌없는 시간과 연구와 연습의 투자가 선포되는 메시지의 질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맛이 달라지면 성도들도 변한다.'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하든 성도는 다 안다.'... 저는 설교 강단에 설 때마다 늘 예레미야 20:9를 묵상하고 등단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답답함' 없이 강단에 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답답함이 에너지가 되었고, 열정이 되었고, 눈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성도님들이 저의 설교를 들으면 다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대충할 수 없는 일이며,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아껴서 되는 일이 결코 아님을 알기에 오늘도 그 초심으로 강단에 섭니다.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아끼면 안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아꼈다가 망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갑시다. 초심으로 재출발합시다. 이 초심으로 한 식당도 일어난다면 우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화자, 신명나게 주님의 사명 아끼지 말고 감당합시다.'

Whenever we get off a plane in Korea, my wife says she craves kimchi stew. As always, as soon as we arrived in Korea, she craved kimchi stew. So, we went to a kimchi stew restaurant nearby our hotel. As soon as we entered the restaurant, we saw a scroll hanging like a banner at the entrance of the kitchen. Following was written on it. "If we skimmed on meat, we are doomed." The sentence was amusing. I took a picture and even posted it on my Kakao. Shortly after, kimchi stew arrived. It could have easily been mistaken for a braised pork dish. Huge quantity of high-quality pork was on top of the boiling stew. Even though I don't enjoy pork, it was tender and delicious without too much fat. The kimchi stew was truly satisfying. It went down so smoothly that I felt like it cleansed my inside. On a wall of the restaurant hung [8 Commandments] of kimchi stew. "If taste of stew changes, customer's heart will change too!" "Good greeting revives the store!" "No matter what I do, customers know everything" "When working, do it with high spirits - cheers to another day!"...every single word pierced straight to my heart. Every word rang true and entirely convincing. I nodded in spontaneous agreement and slapped my knee in sheer appreciation.

These principles can be applied to our faith life. The nature of a church is worship, serving, evangelism and missions. When church skimps on this kind of work, the result is obvious. If the core taste of kimchi is taken out, it no longer tastes good. If it doesn't taste good, the restaurant will fail. In the same way, if the church lost its core, it's headed for doom. Personally, I tried to apply this sentence as a preacher. "If a pastor skimps on studying the Word, his ministry will fail." I agree with this 100%. One can measure how much time, research, and investing in practice is spent without skimping determines the quality of the message. "If the quality of message changes, congregation will change" "No matter what message is preached, congregation knows everything" ... I meditate on Jeremiah 20:9 before each time I stand on the pulpit, "If I say, "I will not mention him, or speak any more in his name," there is in my heart as it were a burning fire shut up in my bones, and I am weary with holding it in, and I cannot." I don't think I have ever stood on a pulpit without the God given holy "weariness with holding in it." This weariness of holding in became my energy, passion, and tears. Nowadays, I think that you know everything as you listen to my sermon. Sometimes, I even fear. This is not a task that can be done half-heartedly. I know that my energy and time cannot be skimmed. So, today, I stand on this pulpit again with that heart of original mind set.

For certain, we all have things that shouldn't be skimmed. Or we failed because of skimping. Let's return to our original heart. Let's make a fresh start with the original mindset. If a restaurant could be revived with the original mindset, we too can revive. "Hooray, let us joyfully and wholeheartedly fulfill the Lord's mission without holding anything back.

주일 설교 시리즈: 호세아 강해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L AFC-13
LOVE ALWAYS FINDS CHRIST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호 14:1-9)

1. 나는 지도(네비)를 들고 길을 찾는 타입인가요, 아니면 이전에 가봤던 경험을 믿고 찾아가는 타입인가요?

적용하기



2.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은 '_____을 가지고' 찾아가야 합니다. 가는 길에 동반되는 우리의 기도와 결단이 있습니다. 아래에 정리해 봅시다.(2-3 절)

1) _____(2a절) 참고 구절을 읽고 사도바울의 '곤고함'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참고/롬 7:24)

2) _____(2b절) '선한 바'를 미가서를 통해 정의하시고, 나에게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지 살펴봅시다.(참고/미 6:8, 고후 5:14, 롬 12:1)

3) _____(2c절) 우리에게 수송아지 보다 더 나은 입술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적이 있나요?

4) _____(3절) '고아'와 상반된 개념으로 사용된 세 단어를 같은 절에서 찾아보면서 고아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1) _____

(2) _____

(3) _____

3. 우리가 고아와 같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습니다. 같이 그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축복합니다.

■ 적용찬양: 주께 가오니, 내 입술로

사역 소개
오이코스팀

예수께서 쓰시겠다 하라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주가 쓰시겠다 하라."(막 11:2-3) 이번 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를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은 너무도 놀랍습니다.

One In Christ On Saturdays(OICOS)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 보셨나요? 2024년 2월 헵시바 1000 운동이 베델의 첫 OICOS 예배로 세워지고, 특별행사 콜라보가 있는 OICOF(One In Christ On Fridays) 예배도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시는지요?

OICOS의 어원이 되는 OIKOS(헬라어 οἶκος)는 가족과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지요. 선교학에서도 오이코스 전도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즉 예배가 가정과 공동체를 증진케 하고 다음 세대와 이웃과 선교를 향한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민자로 디아스포라(헬라어 διασπορ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내가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는 믿음을 다음 세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소망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새벽을 깨우고 베델의 예배당에 들어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가볍고 마음이 기쁘고 설레는 것은 나 같은 죄인도 부르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무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우리를 만

나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다음 세대로 믿음의 기업을 잇는 가정과 공동체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함을 베델에 비추고 계십니다. 모세와 같이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이끄시는 담임목사님과 OICOS 예배 사역 담당 목사님, 그리고 OICOS 팀과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서로를 위해 응원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열매와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 OICOS 사역팀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신 갚으시고 우리의 구원자,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작은 마음들과 기도를 모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찬란한 영광이 주 앞에 드러날 것을 기대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아멘.

변진 집사

선교 후기
멕시코 일일선교

또다른 예배 공동체

일일선교 신청이 늦어 웨이팅이었습니다. 멕시코 치안이 위험하다는 소식에 연약한 마음으로 늦게 신청한 것이 다행인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것이라 믿고 일일선교를 떠났습니다. 50여 명의 선교팀이 토요일 새벽예배 후 교회 버스로 출발하여 국경을 걸어서 통과하고, 다시 멕시코에서 준비된 버스로 이동했습니다. 선교지는 20여 년간 티후아나에서 신학교와 교회 사역을 하시는 박영완 선교사님의 사역지입니다. 10시쯤 도착했고, 염려와는 다르게 평소와 다를없이 평온했습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 후, 바로 각자 맡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안경팀, 약국팀, 의료팀, 아동팀, 식당팀, 건축팀, 사진팀, 네일팀, 미용팀 등 경험 있는 분들과 새로운 분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곧바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섬긴 팀은 미용팀입니다. 이번에는 헤어 전문가들이 두 분이나 오셔서 미용실을 차린 것처럼 매우 분주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어린이들의 머리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젊은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머리 술도 많고 길어서 머리를 빗겨 드리는 데만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마 자르는 시간보다 빗어 드리는 시간이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물을 뿌려 가며 빗었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영킨 머리를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풀어 가며 빗겨 드렸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머리를 빗겨 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주로 남자 머리를 맡아 섬겼습니다. 어린이와 어른신께서 감사하다고 기뻐하시며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각자 맡은 사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바쁜 일상을 뒤로 미루고 하루를 온전히 드리는 모습이 매우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93세 권사님의 선교 이야기

를 들으며 그 열정과 건강한 모습,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바쁘고 피곤하다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10시 반쯤 되었지만, 피곤하기보다는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어느 형제님의 말처럼 오늘 우리가 드린 사역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선교는 예배할 수 없는 곳에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 하였으니, 그곳에 예배당이 굳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김선에 집사



사역 간증
예향

기쁨으로 달려가는 사랑의 전달자



제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아프시고, 환자분 자신과 가족들이 어렵고 지치며 힘든 투병 과정을 함께하시는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교회에서 소리 없이, 하지만 빛과 같이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예향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예향 사역은 기도와 사랑으로 음식을 준비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과, 저처럼 정성스러운 손길로 빛어진 음식을 각 환자분들께 배달하는 사역입니다. 저는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참석

하지 못하지만, 예향 박스에 정갈하게 담긴 음식들을 정해진 환자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께 드릴 음식 박스를 싣고 가는 길에, 간절한 투병의 시간을 지내며 치유를 위해 기도하실 환자분들과 가족들의 절실함이 느껴져 저 역시 마음속으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환자분들이 집에 계셔도 혼자 계시거나 몸의 불편함, 또는 병원 방문으로 부재중이셔서 직접 만나 뵙기 어려울 때에는 문 앞에 놓고 오거나 가족분들께 전해 드리며,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작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음식을 전해 받으시는 모든 분들은 지쳐 계신 상황 속에서도 환한 미소와 함께 깊은 감사를 표하시며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한히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처럼, 예향 사역이 우리 교회 교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다른 교회의 은퇴하신 사모님과 천주교 환자분들까지 섬길 수 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짐을 느끼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음식을 기다리시는 분들의 감사의 말씀을 대신 들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과 정성, 그리고 기도로 음식을 준비하신 분들을 생각하며 제 마음도 몽클해집니다. 환자분이 치유되셔서 더 이상 음식 배달이 필요 없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때에는 함께 기뻐할 수 있지만, 주님의 품으로 가셨다는 소식은 제 마음을 먹먹하게 하기도 합니다.

치유의 기쁨과 이별의 슬픔, 그리고 은혜와 감동이 함께하는 한 달에 두 번의 예향 음식 배달이 모든 필요를 다 채워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몸과 마음이 약해진 그분들께 전해짐을 느끼며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임명신 권사

사역 소개
셀사역

코트야드 사랑의 파라솔 아래



셀 사역(Bethel Cell Ministry)은 각 목장에 속한 셀 공동체가 주일 설교 말씀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돌보며 믿음으로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셀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살아내고 서로를 격려하는 베델교회 안의 작은 교회입니다.

주일에는 봄/가을 학기 동안 매주 코트야드 셀 모임이 열려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며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돌아봅니다. 또한 매월 1회 헵시바 새벽기도 이후 조찬과 함께 셀목자 정기 모임으로 모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매월 다른 테마를 통해 셀목자님들의 영적 재충전을 도모하며 함께

기도와 나눔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건강한 리더십을 세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셀에 속하지 않은 기존 성도분들을 위해서도 부담 없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말씀과 교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번개셀도 매주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셀목자 1.1.1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한 장로님이 한 가정을 품고 1년 동안 말씀과 교제로 함께 걸어가는 사역입니다. 작은 동행의 시작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더 많은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돌봄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또한 기존 셀목자들과 신임 셀목자들을 위한 소그룹 리더 학교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셀목자님들이 셀 모임을 진행할 때 말씀의 올바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리더십을 세워 갑니다. 가을에는 섬김과 헌신으로 수고하시는 셀목자들을 격려하고 감사를 전하는 셀목자 뱅킷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셀 사역은 건강한 베델의 공동체를 세워 가는 사역입니다. 베델의 모든 셀들이 말씀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델의 모든 성도가 셀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셀 사역팀이 함께하겠습니다!!

김학남 집사

사역 간증
베델 콰이어

가장 소중한 은혜



먼저 아름다운 베델교회에서 피아니스트로 섬길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돌아보면 베델교회에서 피아니스트로 섬기는 시간은 제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위해 피아노 앞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자 특권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 예배 반주와 콰이어 연습, 여러 연주들이 늘 당연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와 찬양이 중단되는 시간을 겪으며, 예배가 멈출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마음이 무겁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찾게 만

드시고, 그 과정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새롭게 시작된 베델 콰이어를 통해 다시 예배를 섬길 수 있게 된 것 또한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주일 1부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 6시에 시작되는 콰이어 연습은 아침잠이 많은 저에게는 아직도 큰 도전이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늦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델 콰이어의 연로하신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먼저 오셔서 조용히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25년 동안 베델교회의 피아니스트로 섬기며 기쁜 시간도 많았지만, 긴 광야와 같은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보내 주셔서 지칠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피아니스트로 있는 이 자리가 저의 믿음과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제 삶을 통해 드러지는 찬양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현미 권사



교회학교 소개
어와나

기뻐하시는 제자훈련



어와나(AWANA)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이라는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을 기초로 펼쳐지는 어린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그 진리를 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사역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어와나는 지식적인 이해를 넘어 전인적인 신앙 성장을 위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지향합니다.

- Head(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체계적인 암송과 성경 학습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압니다.
- Heart(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합니다.
- Hands(그 믿음을 삶 속에서 살아내기): 배운 말씀을 삶 속에서 섬김과 협력으로 실천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흥미와 신앙 성장의 균형을 고려하여 세 가지 시간으로 운영됩니다.

- Handbook Time: 소그룹별 교재 학습과 말씀 암송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견고히 다지는 시간입니다.
- Council Time: 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설교

-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경험하는 예배 시간입니다.
- Game Time: 역동적인 팀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건강한 규칙과 배려를 배우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어와나는 매년 9월에 개강하여 가을과 봄, 두 학기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어린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과 기쁨을 누리며, 말씀 암송과 성경 학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세워지도록 설계된 것이 어와나만의 큰 강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제자로 자라가는 이 복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와나에서 선생님 또는 TA로 섬기고 싶거나, 가을 학기에 자녀들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awana@bkc.org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근제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화평/운유/성경: 박성권 목사
- 사랑/셀/올림: 조태현 목사
-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 믿음/새가족/QTin: 조동현 목사
- 은혜/예배/BCA: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 예상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상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상채플: 이형석 목사
- 예상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신재민 전도사
- 한어중등부: 이성우 목사
-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환우: 정티나 목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상 위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안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인: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용관: 오춘란

주차장 Drill Sunday

지역광고

새가족 환영회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VIP분들을 위한 주차 준비를 위해 Drill Sunday를 진행합니다. 이 날 교회 분당 주차장 대신 비전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차하신 후 교회 셔틀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한 준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축제 당일(4월 5일)에도 잊지 않고 비전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델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 나타내실 주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 ▶ Drill Sunday 일자: 3월 29일(주일)
- ▶ 셔틀버스 운행 시간: 오전 5시 30분-오후 2시 30분
- ▶ 비전 주차장 주소: 3377 Michelson Dr, Irvine, CA 92612(Michelson Dr에서 Prince St 방향 진입)
- ▶ 문의: 김주홍 집사 (213)880-1022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베델교회로 인도해 주신 소중한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베델 가족이 되신 것을 축하하며 여러분을 위한 풍성한 환영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온 가족이 오셔서 목회진과 리더십과 함께 따뜻한 식사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후 4시 20분까지 오시면 담임목사님과의 '미니데이트' 사진 촬영 시간도 있습니다. 서로를 더욱 알아가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 ▶ 일시: 3월 28일(토) 오후 5시
- ▶ 장소: 유년부실
- ▶ 문의: 석승진 장로 (949)232-0872
- 황의진 집사 (949)929-5620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3,4월)	3/29:	①부-탁정호	②부-이근제	③부-이완희	④부-최유진
	4/5:	①부-정낙성	②부-최주상	③부-이우용	④부-김도윤
	4/12:	①부-장지봉	②부-황대경	③부-홍락기	④부-김에스터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3,4월)	3/28:	류정빈	4/4:	박기승	4/11:	박영선	4/18:	박철용
	강단꽃(3,4월)	3/22:	배사라	3/29:	박선경	4/5:	장석우	4/12: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박현선(소아과), 간호사-Tina Nguyen 다음주 | 의사-김재호(한외과), 간호사-윤경자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방)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새생명축제 3차 VIP 작정** 오늘 주일 1부~3부 예배에 VIP 3차 작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본당 입구에 배치된 VIP 작정 카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 Come & See JESUS! '가시관'에서 의의 면류관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시며 보여주시는 낮아지심과 죽음을 마음 깊이 다시 새기고, 우리 삶에 닥친 현재의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자리에 모든 성도님을 초청합니다.

일시/장소: 3월 30일(월)-4월 3일(금) 저녁 7시 30분, 본당
*성금요일(4월 3일)에는 성찬식과 베델 코어의 특별순서가 있습니다.

◆ **드릴 선데이! 비전있게 파킹하세요!** 다음 주 주일(29일)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본교회 파킹랏을 비우는 'Drill Sunday'로 지킵니다. 4월 5일 부활주일에 오실 VIP를 위한 섬김은 비전파킹랏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보삼지 참고)

◆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시고 베델가족이 된 새가족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를 갖습니다. 목회자, 교회 리더와 함께하는 만찬과 은혜로운 교제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7면 참고)
일시: 3월 28일(토) 오후 5시(4시 20분부터 담임목사님과 미니 데이트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장소/문의: 유년부실, 석승진 장로 (949) 232-0872, 황의진 집사 (949) 929-5620

◆ **함께 써 내려가는 베델의 50년사** 베델에 임하신 주의 영광을 헤아려 감사로 올려드리며 다음 세대에 전하는 베델 교회 50년 역사 편찬을 위해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베델 성도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꼭!! 가장 은혜로웠던 사역, 표어 등을 회고하고 다음 세대에 축복을 전하시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설문 결과는 50년사 편찬에 소중한 자료로 쓰여집니다.
마감: 오늘 3월 22일(주일)까지
방법: 코드야드 부서에서 서면이나 QR 코드로 온라인 참여 가능
문의: 정광목 장로 (949)232-3963, bkc50jung@gmail.com



◆ **세례/입교 문답** 다음 주일(29일) 3부 예배 본당에서 있을 세례 및 입교식을 위한 문답이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성인 문답 일시/장소: 오늘(3월 22일), 오후 1시 15분, 목회자실
BYM, CIM 문답 일시/장소: 오늘(3월 22일), 오후 1시, 112호실
(예살, JM 대상자들은 자세한 내용을 부서별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문의: 박재문 장로 (949)241-4987, 배홍수 목사 (949)708-4175

◆ **연합기도회 및 기도학교 세미나** 골방기도, 레위기도, 두드림, 기도편지, 기도학교로 동역하시는 모든 분,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을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진행되오니 기도학교 등록 중인 성도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3월 28일(토) 헵시바예배 후 오전 7시 30분, 샬롬채플
문의: 양승화 집사 (714)512-1236

◆ **선교 바자회 물품 도네이션** 올해 4월 18일 'COME AND BEST BUY FOR MISSION'이라는 표어 아래 선교 바자회를 준비 합니다. 베델 선교를 향한 천국 잔치를 사모하며 성도님의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물품 대상: 성도님들의 사업체의 물건 또는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은 물건
접수 기간: 3월 15일(주일)부터 3월 25일(목)까지
문의: 이재석 집사(949) 943-0850, 손석환 집사 (949) 241-9359, missionevent@bkc.org

◆ **오늘부터 가족 Let's Be Family** '야나(YANA)'와 협력하여 한국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과 우리 교회 가정을 1:1로 연결하여 아이들에게 온전한 가정에서 지내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코드야드에서 후원 등록이 3월 22일(주일)에 시작됩니다.

설명회 일시/장소: 3월 29일(주일) 오후 1시 비전채플
섬김 기간/방법: 6월 13일(토)-21일(주일), 홈스테이, 재능, 물질 기부 등
문의: 박성규 집사 (714)423-8607



◆ **GMMA 참가자 모집** 2026 GMMA National Medical Missions Conference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이를 위해 학생 및 부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베델교인에게는 50% 특별할인(쿠폰 코드: BETHEL2026)이 적용됩니다.

일시/문의: 6월 25일(목)-27일(토) 주용중 집사 (949)812-2906, www.gmma7.org

◆ **기도해 주세요**
국제전도폭발 미주 한인본부에서 주최하는 제82차 국제전도폭발 지도자 임상 훈련이 3월 23(월)부터 26(목)까지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김창훈 성도님(김진엽 성도의 부친, 이지원 성도의 시부)께서 3월 12일(목)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서정에 권사님(서동민 장로의 아내)께서 3월 16일(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김원숙 권사님(김남희 권사의 모친)께서 3월 18일(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WANA(어와나):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샬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살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 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HOSEA LECTURE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L AFC -13
LOVE ALWAYS FINDS CHRIST

Take Words with You and Return!

(Hosea 14:1-9)

1. Are you the type of person who travel the roads using a navigation map, or do you do so trusting in your recollections from a prior trip?

Apply to Life



2. The only way to return to the Lord is by taking _____ with you. A companion on the road to return is our prayers and resolve. Let's complete the following. (v. 2-3)

1) _____ (v. 2a) From the reference verse, please discuss what was Apostle Paul's distress. (Ref: Rom 7:24)

2) _____ (v. 2b) Define "being good" using the Book of Micah and reflect upon this to see if you also have deep longing for such. (Ref: Mic 6:8, 2 Cor 5:14, Rom 12:1)

3) _____ (v. 2c) What is the 'fruit of our lips' that is better than a bull calf? Have you had a recent experience to bring forth 'fruit of our lips'?

4) _____ (v. 3) Find three words that are the opposite of the concept of 'fatherless' in this verse and reflect upon meaning of 'fatherless'.

(1) _____

(2) _____

(3) _____

3. We realize that being orphans we live by the grace of our perfect God. Let's share this grace and bless each other.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

■ **Song in Response:** The Power of Your Love, With My Lips